...그래서 프로파간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공산주의자를 찾는데 있어서 외형적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공공연히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의 말을 믿어야겠죠.



만일 그가 공산주의자들의 출판물을 읽고 그들의 관점을 옹호한다면,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제국주의자를 타도하자!) 공산주의의 가르침을 설파하거나 법무부에게 공산주의자라고 지목된 단체를 지지한다면, 그녀는 공산주의자 입니다.



공산국가의 행위를 옹호하고 미국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공격한다면, 그녀도 공산주의자일 것 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한다면, 그는 틀림없는 공산주의자 입니다.



(KKK의 테러를 끝내자!) 하지만 자신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않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자들은 좀 더 조용하게 행동합니다.



(해설)1950년대 초, (미국)공산당의 당원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프로파간다는 공산주의자의 위협을 엄청나게 부풀렸습니 다. 그리고 그 사악함이 만연하게 퍼져있어, 그에 맞서기 위해 사회 전체가 동원돼야 한다고 했죠.



노동절입니다! 충성 퍼레이드에서 100,000만명이 뉴욕 5번가를 행진하며 반공 정서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는 신과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을 부정한다)



(공산당을 금지해라!)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천적인 공산주의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단결된 대답입니다!



(한 가정집에 들이닥치는 군인과 장교) "하사는 주방을 확인하고, 자넨 뒷마당으로 가보게"



"이봐!"

"이게 무슨짓이지? 어디로 가려는거냐?"



("붉은 악몽" 미 정부 영상물)

"설명할 시간이 없소. 이미 예정보다 15분이나 늦었거든."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는 상관없어, 영장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지나갈거요!"



"영장? 영장같은건 필요 없소. 당신의 딸은 청년공산주의자연맹의 회원으로서 집단농장에 자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트럭도 밖에 기다리고 있고요."



"내 딸이 자원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여기 따님의 서명입니다. 집단농장으로 수송해줄것을 요청했죠."

"서명이고 서류고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하는말도 거짓말이지. 왜냐면 내 딸은 그 애의 자유의지로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테니까!"

"하사!"



"그건 사실이에요 아버지. 저 농장일에 자원했어요."

"린다, 대체 왜?"



"당에서 제가 노동으로서 저 자신을 가족 생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준비 다 됐어요."(음질이 안좋아서 의역함)



"야하다.."



"방해하지 마세요. 저 자신을 위해서니까요."

"도노반 동지, 당신의 일탈을 그냥 넘어갈거라 생각하지 마시오. 모두 관련 당국에 보고될것이오."



???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매카시즘시기에 나온 미국 프로파간다물인거 같은데 재밌어서 한번 번역해봤음.